
방통위 인도 공무국외출장 결과

- 한류 방송콘텐츠 인도 진출 및 양국 방송통신 정책 협력 등 논의 -

◆ 기 간 : 2019. 7. 30. (화) ~ 8. 3. (토), 3박 5일

◆ 방문국가 : 인도(뉴델리)

2019. 8.



방송통신위원회

목 차

I . 출장 개요	1
II . 세부 활동	2
1. Bharti Airtel(통신사) 면담	2
2. 인도 한국문화원 방문	9
3. 프라사르 바라티(Prasar Bharati) 면담	13
4. 인도 방송정보부(MIB) 면담	20
5. 인도 통신규제위원회(TRAI) 면담	28
III . 보도자료(1건)	34

1. 출장 목적

- 신남방국가의 하나인 인도와 정부간 정책 협력 방안 및 양국의 콘텐츠 교류 지원 방안 등 논의

2. 출장 국가 : 인도(뉴델리)

3. 출장 기간 : '19년 7월 30일(화) ~ 8월 3일(토), 3박 5일

4. 출 장 자

구분	부 서	직 위(직 급)	성 명
1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김 석 진
2	기획조정관	의안정책관리팀장	전 혜 선
3	방송기반국	방송기반총괄과 사무관	김 성 환
4	운영지원과	부위원장 비서관	김 형 국
5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 사무관	권 혜 진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허소선 연구원, 김지은 통역사 동행

5. 주요 활동

- (정부 간 협력) 인도의 방송통신 정책입안기관, 규제기관을 방문하여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대비한 정책 협력 방안 논의 등
- (콘텐츠 교류 등) 방송통신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양국간 방송 콘텐츠 교류 지원 방안 논의 등

6. 선물수령 관련

- 선물 수령 여부 : O (TRAI : 전통 문양 액자)
- 선물 신고 여부 : X (미화 100\$ 이하의 단순 기념품)

1. Bharati Airtel(바라티 에어텔) 면담

□ 개 요

- 일 시 : '19. 7. 31.(수) 14:30 ~ 16:00
- 장 소 : Bharati Airtel Conference Room
- 면담자 : Randeep Sekhon CTO 등

< Bharati Airtel(바라티 에어텔) > 개요

- 기업명 : 바르티 엔터프라이즈 (Bharti Enterprises Limited)
- 설립 : 1976년 (본사: 뉴델리)
- 설립자 및 現 회장 : 수닐 바르티 미탈 (Sunil Bharti Mittal)
 - 순자산 : 포브스 선정 세계 부자 8위 (순자산 833억 달러)
 - 주요 경력 : 인도 최고시민상 '파드마 부산 (Padma Bhushan)' 수상 (2007년), 국제상공회의소 의장 (2016년)
- 경영진 : Sunil Bharti Mittal (회장), Rakesh Bharti Mittal (부회장), Rajan Bharti Mittal (부회장), Akhil Gupta (부회장)
- 비전 : ▲인도 국민 강화(empowering) ▲고객 및 협력사들로부터의 존경 ▲사회에 긍정적 영향력 발휘 ▲대담성을 가지고 꿈 실현하기
- 사업 개요 : 자전거 제조업으로 출범해서 통신, 보험, 부동산, 교육, 쇼핑몰, 농산물, 식품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
 - 매출 : '14년 기준 미화 165억 달러
 - ※ 비상장기업으로서 최근 매출 자료를 공개하지 않음
 - 자회사 : Bharti Airtel, Bharti Infratel, Bharti Realty, Bharti Telemedia Ltd, Bharti AXA Life Insurance, Bharti Retail, Bharti Softbank Holdings, Beetel Teletech, Centum Learning, Field Fresh Foods, Indus Towers 등

□ 주요 면담 내용

【 인사말씀 】

- (KCC) 바쁘신 가운데서 방송통신위원회 대표단 방문을 흔쾌히 수락해 주시고 이렇게 시간을 내주신 란디프 섹혼 CTO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한-인도는 1973년도 국교수립 이후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
- 2018년 7월에는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하여 나렌드라 모디 인도총리와 함께 양국 국민의 평화와 상생, 번영을 위한 <한-인도 비전>을 선포하였음

<주요 면담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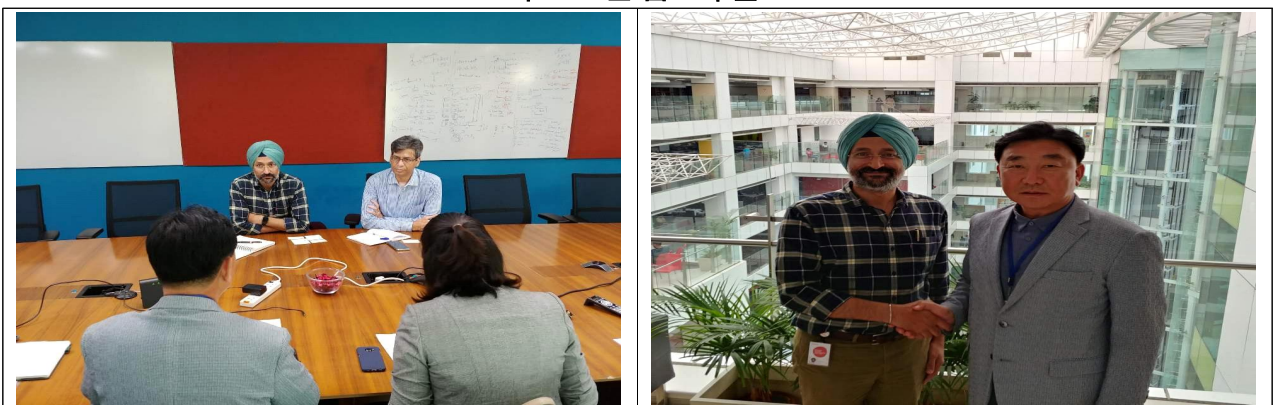
- 지난 3월에도 모디 인도 총리가 대한민국을 재방문하여 한반도 평화를 기원해 주셨고,
- 바로 지난달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는 “철강산업 분야 협력 등”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인도의 <신동방정책> 사이의 협력점을 찾아 시너지를 내자고 상호 의견을 교환한 바 있음.
- 오늘 면담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되어 방송통신 분야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함

- (Bharati Airtel) 인도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한국과 인도 정상 간 활발한 협력논의는 통신분야에도 매우 뜻깊은 일로 생각함
- 통신기술에 있어서 한국은 선도국이며 우리 Airtel의 경우도 삼성으로부터 기술지원도 받고 KT·LG·SKT 등과도 다방면에서 교류하고 있음
- 특히, 우리는 한국의 5G 서비스에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기술교류를 희망하고 있음

【 통신시장 및 장비 등 】

- (KCC) 인도의 통신시장은 매우 역동적으로 바라티 에어텔(Bharti Airtel)의 시장점유율은 2016년 12월 현재 23.58%였으나 2018년 12월 현재 32.72%로 급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급성장하고 있는 배경은 무엇인지 궁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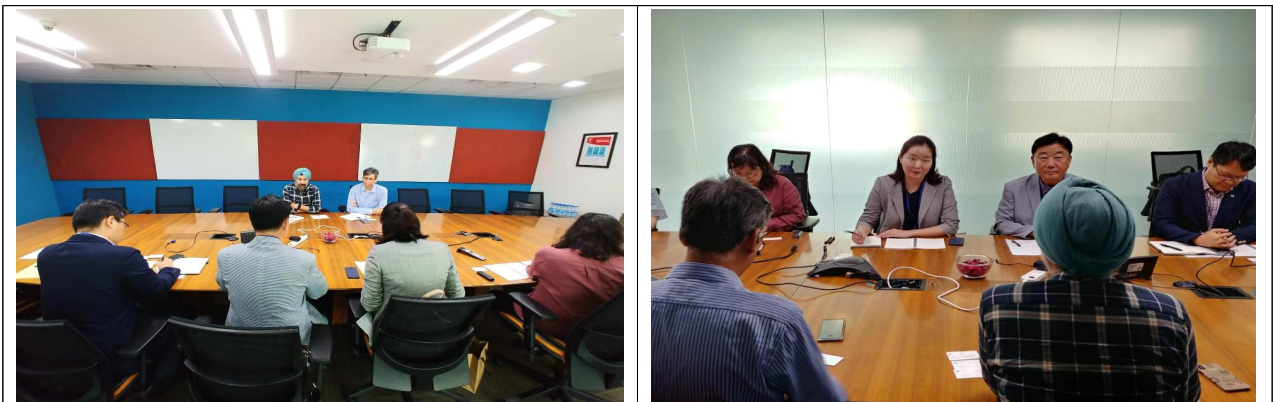
<주요 면담 사진>



- (Bharati Airtel) 인도는 인구가 많고 국토가 넓어 유선을 이용한 통신서비스보다는 휴대폰 등 무선 통신서비스가 적합함.
- 13개 넘는 통신사업자가 서비스 경쟁을 하고 있으며, '19년 기준 4G 보급률은 약 80%가 넘어가고 있음

- 오락 중심의 영상콘텐츠 소비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으며, 다른 국가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o (KCC) 한국의 경우 통신역무는 국가 기간산업이라는 점을 감안, 외국인 지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인도의 경우, 글로벌 통신사업자로 3위 사업자인 보다폰이 지난해 7위 사업자인 아이디어를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글로벌 통신사가 인도에 진출하여 경쟁함에 있어서 장단점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기 바람

<주요 면담 사진>



- o (Bharati Airtel) 인도 통신시장에 외국자본에 대한 투자 제한 규제는 없으며, 보다폰 등 외국자본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인도의 통신설비 및 망 구축에 기여한다고 생각
- 외국자본의 활발한 투자는 5G 같은 새로운 서비스를 확산시키는데 도움이 됨
- o (KCC) 대한민국은 5G 기술을 선도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한 경험이 많아, 인도와의 교류협력이 강화되면 좋을 것임. 통신장비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 관계가 있는지 궁금함

- (Bharati Airtel) 휴대폰 단말기, 통신장비 등의 경우 한국이 매우 우수한데, 특히 삼성전자가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함
 - 한국의 5G 관련 장비에 매우 관심있고 기대하고 있는 상황임
 - 한국과 인도간 관세협정에 따른 세제혜택 등 정부차원의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기업에게도 매우 유리한 상황이 될 것임
 - 특히,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국의 통신사업자들에게 바라티 에어텔을 잘 소개하고, 많은 교류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달해 주길 바람
- (KCC) 인도 진출시 한국 기업의 혜택, 인도 통신사업자 현황 등에 대해 잘 알리도록 하겠음

<주요 면담 사진>



【 공정경쟁 환경 관련 】

- (KCC) 유튜브 등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들이 대용량의 트래픽을 발생시키지만 망 이용료는 부담하지 않거나 국내 인터넷 사업자들 보다 낮게 부담하여 통신산업 발전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글로벌 사업자들은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요금을 받으면서 콘텐츠 사업자에게도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라고 반박하고

있음. 귀사는 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전용회선, 망접속 등과 관련하여 이용료를 받고 있는지 궁금함

○ (Bharati Airtel) 인도의 경우도 글로벌 사업자가 망이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전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함

- 글로벌 OTT, 콘텐츠 제공사업자 등은 각국 현지에서 많은 수익을 올리면서 세금은 물론 망이용료도 내지 않고 있음

- 이 문제는 개별사업자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인도정부 나아가 여러 나라가 연대하여 정책적으로 고민해야 할 사안임

○ (KCC) 한국의 이동통신 가입자 유치수단은 신형 단말기에 지원금을 제공하는 형태로 고가요금제를 판매하면서 가입자를 유치하는 형태임. 인도의 경우는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람

○ (Bharati Airtel) 인도의 경우, 단말기 보조금 지급 형태는 없고 선불제 요금ی 대다수를 차지하는 특징이 있음

- 인도는 저가요금제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임. 고객만족을 중요한 가치로 두고 요금이 올라가면 다양한 혜택도 주어진다는 인식을 제공하고 있음

○ (KCC) 한국의 이동통신시장은 이미 포화상태로 상호 가입자를 뺏어오기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며, 시장과열로 인한 이용자 차별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각종 규제를 통해 시장을 안정화하고 있음

○ (Bharati Airtel) 인도의 경우도 많은 사업자가 경쟁하고 있는 만큼

공정경쟁과 관련한 규제가 상당하고 과징금등 경제적 제재장치도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음

- 과도한 무료 또는 할인 서비스 제공, 망중립성 등 공정경쟁과 관련된 규정 등을 준수해야 하며, 한국과 마찬가지로 주파수 이용료도 부담해야 하고 여러 가지 인허가 사항도 상당함

【 마무리 】

- o (KCC)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Randeep Sekhon CTO(란디프 섉훈)님을 만나 양국 간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 대응, 통신 시장 현황 및 분쟁 조정과 관련 현안 사안 등을 논의하게 되어 매우 기쁨
-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어 저희 대표단을 환영해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 인도 한국문화원 방문

☐ 개 요

- 일 시 : '19. 8. 1.(목) 9:30~10:30
- 장 소 : 한국문화원
- 면담자 : 김 금 평 원장 등

< 한국문화원 개요 >

☐ 개 요

- 개원일 : 2012년 12월 13일
- 주소 : 25 A, Lajpat Nagar 4, New Delhi, India
- 시설 : 연 면적 2,332㎡, 전체 5층 중 5층 사용(임차)
- 조직 및 인력
 - 김금평 원장, 행정직원 11명(한국인 3명, 현지인 8명)

☐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 문화원 총 방문자수 : 74,480명
- 강좌 횟수 및 수강생
 - 한국어 강좌 : 1,382회, 수강생 24,061명
 - 태권도 강좌 : 226회, 수강생 3,000명
- 전시회 : 36회, 관람객 9,282명
- 공연 및 행사 : 163회, 관람객 158,986명
- 도서관 : 13,748명 방문, 한식카페 17,947명 방문
- 주요 역점 사업
 - 허왕후 기념공원 확대조성 착공식

- 전인도 K-POP 콘테스트 2018
- 제 3회 한-인도 친선 퀴즈 경연대회
- 제 6회 한-인도 친선 수필 경연대회
- 한국문화원-인도학교 협력 프로젝트

□ 2019년 업무 추진방향

비전	한·인도 문화 - 행복한 만남		
목표	문화원 및 주최행사 방문자 250,000명 달성	홈페이지 방문자 200,000명 달성	행사 참여자 만족도 (보통 이상 90%) 달성
전략	VIP 국민방문 계기 한인도 문화적, 역사 적 유대 강화 한류 확산을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차세대 청소년 대상 Win-Win, 동반성장 국가 이미지 제고	추진 사업	1. 허왕후 기념공원 확대 조성사업 2. 타고르 한국실 설치 3. 주요 인도 문화유적내 한국어 안내 설치 5. K-Pop 및 한류 문화 Festival 전인도 확산 개최(20개 도시) 6. 인도 최대 영화배급사, PVR과 협력, 인도 내 주요 3개 도 시 한국영화상영회 행사 진행 7. 전인도 태권도 대회 개최(문화원장배, 대사배) 8. 문화원 자매결연학교 98개 대상,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 (공연, 사물놀이, 태권도, 한식등) 운영 9. 전인도 한인도 친선 퀴즈, 에세이, 그림, 한국어 말하기 경연대회 개최 10. 한인도 청소년 및 학교 교류 프로그램

□ 주요 면담 내용

※ 면담에 앞서 문화원 학생들의 K-POP 및 사물놀이 공연 관람

<공연 및 관람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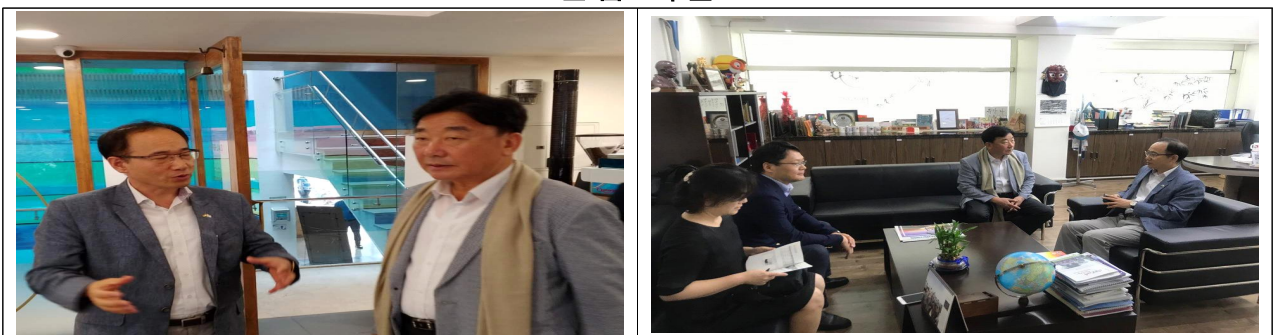
【 K-pop 등 한류 확산을 위한 노력 】

- (문화원) 인도문화원은 지난 7월 27일 LG와 공동으로 <2019 전인도 K-POP 경연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 대회에는 K-POP에 관심 있는 수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하여 인도 15개 도시에서 예선을 거쳐 본선 대회를 개최하였음
- (KCC) 인도에서도 청소년들 사이에서 K-POP 등 한국문화가 인기가 있다는 것을 앞선 공연에서도 느낄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한류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KBS 월드와 Prasar Bharati(프라사르 바라티)와의 협력 관련 】

- (문화원) 지난 2월 KBS와 인도의 최대 공영방송사인 Prasar Bharati와 국제방송 교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현재 인도 측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음
- (KCC) 인도는 적게는 13억에서 많게는 14억 인구 대국으로 KBS와 Prasar Bharati의 협력은 K-POP와 한국문화를 인도에 전파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수 있을 것임
- (문화원) 이미 인도 측에서는 KBS월드에 대한 채널 등록비와 위성 방송 송출비 등을 면제해주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KBS 측에서도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임
- (KCC) KBS에도 이러한 상황을 알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겠음
- (문화원) 인도에서는 최근 몇 년 새 급증하는 스마트폰 보급과 SNS 등 소셜미디어 이용에 힘입어 한류 문화 선호층이 크게 늘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KBS와 Prasar Bharati의 협력은 한류 확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KCC) 문화원에서 보여주신 K-POP 및 사물놀이 공연을 통해 인도 청소년들의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우리 문화의 확산을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람

<면담 사진>



3. Prasar Bharati(프라사르 바라티) 면담

□ 개 요

- 일 시 : '19. 8. 1.(목) 11:00~12:30
- 장 소 : Prasar Bharati 회의실
- 면담자 : Shashi Shekhar Vempati CEO 등

< Prasar Bharati(프라사르 바라티) > 개요

- 성격 : Prasar Bharati Act(프라사르 바라티 법령)에 근거해 결성된 자치 조직
- 결성 연도: 1997년 11월 (본부: 뉴델리)
- 사명 : ▲민족·언어·문화의 다양성 존중 ▲국가 통합 증진 ▲공정한 정보 전달을 통한 알권리 보호 ▲여성 문제에 대한 의식 제고 ▲노동자층·소수자·부족 사회의 권리 보호 및 사회정의 증진 등
- 산하조직 : 'Doordarshan Television Network(DD)', 'All India Radio(AIR)'
 - * DD와 AIR은 과거 방송정보부(Information and Broadcasting Ministry) 미디어부 소속
- 위원회 : 선출 혹은 정부 지명을 통해 위원회를 구성
 - 위원회는 의장, 최고집행위원(1인), 재정 위원(1인), 인사 위원(1인), 파트타임 위원(6인), DD 사무총장(1인), AIR 사무총장(1인), 방송정보부가 지명한 대표(1인), 직원(2인)
 - * 의장은 파트타임 직책으로 3년 임기, CEO는 5년 임기, 재정 및 인사 위원은 6년 임기
 - 의장 및 위원(DD와 AIR 사무총장 2인 제외)은 대통령이 임명
 - 위원회는 1년에 최소 6회 소집이 원칙이며 권한 및 책임을 최고집행위원에게 위임
- 기타 : '19년 2월 KBS의 국제방송 'KBS월드 TV'의 인도 진출을 위한 협약 체결

□ 주요 면담 내용

【 인사말씀 】

- (KCC) 인도 Prasar Bharati(프라사르 바라티)를 방문하게 되어 매우 기쁘며, Shashi Shekhar Vempati(샤시 쉐카 뎀파티) 대표님을 만나게 되어 영광임
-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방송정책과 공영방송의 역할 등 방송정책 전반에 대해 폭넓은 의견교환이 있기를 기대함

<주요 면담 사진>



- (Prasar Bharati) 인도를 방문해 주셔서 매우 고마우며, 양국 방송 발전과 관련한 의미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함

【 방송 콘텐츠, KBS 월드 관련 】

- (KCC)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정책 수립 및 규제를 총괄하고 있음. 한국의 한류 콘텐츠 즉, 드라마 · 영화 · K-Pop 등이 세계 각국에서 인기중임
- 특히, 인도 Doordashan(두다산) 방송국을 통해 한국 드라마 <대장금>, <해신>, <허준> 등이 방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인도에서 한국 방송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인지도 매우 궁금함
- o (Prasar Bharati) 한국의 콘텐츠는 인도에서도 많은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우리도 그래서 우리 산하 방송국인 DD 위성 플랫폼인 FREE DISH를 통해 KBS월드가 송출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었음
- 한국의 K-Pop 등이 인도 청소년들에게 매우 인기가 있으며, FREE DISH를 통해 인도 국민이 직접 시청할 수 있게 될 것임
- 또한, 인도 공영방송 프로그램도 한국 KBS의 웹 플랫폼을 통해 송출하게 되면 인도 이야기를 한국에 전할 수 있을 것임

<주요 면담 사진>



- o (KCC) KBS월드가 인도 전역에 런칭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고, 특히 등록비용을 면제해 준 점 매우 고맙게 생각함
- 어제 Prasar Bharati가 서명하고, 우리 문화원측에 전달되어서 지금 항공편으로 한국으로 전달되고 있다고 보고받았음
- 지난 협약식 이후 여러 난제들을 해결하고 빨리 진행된 점에 대해 매우 감사드리며, 저도 한국에 돌아가 KBS측에 이러한 과정을 전달하고 후속조치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음

- 또한, 대한민국은 미국·유럽·동남아시아 등 모든 문화를 접하고 있는데, 인디아 문화는 조금 신비로울 정도로 교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인도 DD 방송이 한국 시청자에게 방영이 된다면 굉장히 신비롭고 많은 반응이 있을 것으로 확신함

【 인도 방송구조 관련 】

- o (KCC) DD(TV)와 AIR(라디오)은 과거 방송정보부(Information and Broadcasting Ministry) 미디어부 소속이었으나, 지금은 Prasar Bharati(프라사르 바라티) 소속인 것으로 알고 있음
- 인도 방송체제는 국영방송 체제에서 공영방송 체제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Prasar Bharati(프라사르 바라티)는 DD(두다산, TV)와 AIR(라디오)의 관리·감독 기구로 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함

<주요 면담 사진>



- o (Prasar Bharati) 우리 조직은 1997년 Prasar Bharati ACT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 라디오 방송 DD AIR는 1936년, TV 방송 Doordarshan은 1959년부터 방송되었으며, 그 당시 지위는 정부 소속이었음
- 그러나, 정부간섭으로부터 보호하고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영방송 규제기관으로 전환하기 위해 1997년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였음

- (KCC) Prasar Bharati(프라사르 바라티)는 DD(두다산, TV), AIR(라디오) 등의 방송국 대표에 대한 임명 권한도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기 바람
- (Prasar Bharati) 우리는 총 15명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운영되며,
 - 의장, 최고집행위원, 재정 위원, 인사위원, 비상임 위원(6인), DD 사무총장, AIR 사무총장, 방송정보부 지명 인사, 직원 인사(2인)로 구성
 - 별도의 방송국 대표가 있는게 아니라, TV와 라디오 사무총장이 있으며, 이사회에서 여러 후보중 임명하게 됨

<주요 면담 사진>



【 방송재원 관련 】

- (KCC) 전통적으로 지상파 방송은 광고가 가장 큰 재원인데, DD (두다산, TV)의 재원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또한 인도 공영방송은 국민들로부터 수신료를 받고 있는지 여부
- (Prasar Bharati) 법에 따라 수신료를 받을 수 있지만 현재까지 징수하지 않고 있으며, 재원은 주로 정부 예산, 라이선스피, 인프라 대여료 등으로 구성. 직원들의 임금도 공무원처럼 정부 예산으로 지급되고 있음

- 특히,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조직 간소화 작업을 진행하여 수익구조가 좋아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통신사에 인프라를 대여하여 거기서 수익이 많아지고 있음

【 콘텐츠 교류 협력 관련 】

- (KCC) 한국과 인도는 2015년 9월 CEPA 협정을 근거로 시청각공동 제작협정을 체결한바 있으며, 방송사간 MOU, 공동제작 성과 등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공동제작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 (Prasar Bharati) 지금까지 크게 3가지 형태로 한국방송과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제작이 있었음
 - (1) 21세기 육아, (2) 디지털 학교, (3) 아시아 현대의 가족에 대해 프로그램 제작이 있었으며, 이러한 협력 활동을 통해 서로 문화 교류를 증진하고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성과가 있었음

【 OTT 서비스 확산 관련 관련 】

- (KCC) 한국에서는 실시간 방송이 아닌 인터넷을 통한 다시보기 형태를 통한 동영상 콘텐츠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고, 인도도 인터넷 이용자 중 OTT 서비스 이용자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알고 있음
 - OTT 확산에 따른 시청행태의 변화에 대응한 프라사르 바라티의 대응 (콘텐츠 전략, 플랫폼 송출 등) 전략이 궁금함
- (Prasar Bharati)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OTT에 대해 3가지 형태로 대응하고 있음
 - (1) OTT를 활용하여 라디오 서비스에 주력하고 있음. 고유의 뉴스 어플을 통해 25개 언어로 자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음

- (2) 자체 TV 어플 앱을 통해 라이브 방송을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서 자체 콘텐츠를 유튜브를 통해 라이브 방송을 제공하고 있음
- (3) OTT를 방송 콘텐츠 아카이브로 활용하고 있음. 역사 보존 콘텐츠 등 과거 콘텐츠를 OTT를 활용하여 디지털화하고 보존하고 있음.
- 인도는 OTT에 대한 규제가 없으나, 통신규제위원회에서 의견수렴을 한 결과 방송사업자와 같이 OTT 사업자도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OTT 사업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
- o (Prasar Bharati) 우리는 DD FREE DISH를 통해 시청자에게 무료로 방송을 제공하고 있으나, 전파가 도달되지 않는 지역도 많음. 그래서 우리는 5G 등 통신망을 통해 핸드폰 단말기로 우리 방송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으며 한국의 삼성이나 LG 등의 공동 연구도 필요함

【 마무리 】

- o (KCC) 오늘 면담을 통해 인도 문화, 다민족 다언어 국가의 공영방송 전략, OTT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많은 이해가 되었으며, 앞으로 오늘 자리를 시작으로 상호 발전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음

4. 인도 방송정보부(MIB) 면담

□ 개 요

- 일 시 : '19. 8. 1.(목) 15:00~16:30
- 장 소 : MIB 회의실
- 면담자 : Shri Amit Khare 차관 등

방송정보부(MIB) 개요

- 명칭 : 방송정보부(MIB, Ministry of Information and Broadcasting)
- 설립 : 1946년 9월
- 주요 임무 : 인도의 정보(information), 방송(TV), 영화산업의 규정(rules), 규제(regulations), 법률(laws)를 제정하고 집행하는 부처
 - 방송 산업 분야에서는 인도 국영 방송사인 'Prasar Bharati' 관할
 - 영화 산업 분야에서는 '중앙영화인증위원회(Central Board of Film Certification, CBFC)' 관할
- 비전 :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산업 분야의 지속적 성장, 가치 기반의 건전한 엔터테인먼트 확산, 정부 정책과 프로그램 및 성과를 효과적으로 전달
- 미션
 -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 보장 및 언론의 자유 보호. 정책 프로그램과 및 성과 홍보
 - 일반 시민에 대한 정부의 주요 프로그램의 홍보
 - 인쇄, 전자 매체, 영화 분야에서 젊은층의 잠재력 개발 지원 위한 인프라 강화/확장
 - 인도의 방송 산업 발전, 공영 방송 강화
 - 공정하고 정확한 방송 콘텐츠 등급 제작 시스템의 도입
 - 엔터테인먼트/미디어 산업 민관 협력(PPP, Public Private Participation)의 발전
 - 다양한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영화 제작 지원을 위한 정책의 마련
 - 영화/동영상/오디오 콘텐츠에 대한 복원, 디지털화, 유지, 대중 접근성 개선

□ 주요 면담 내용

【 인사말씀 】

- (MIB) 인도의 정보, 방송, 영화 등의 산업을 관장하는 우리 MIB를 방문해 주셔서 매우 고마우며, 환영함

<주요 면담 사진>



- (KCC) 저를 비롯한 한국 방문단을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며,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관련 담당자까지 모두 배석해주셔서 고마움
 - 오전에 미팅한 프라사르 바라티 대표, 간부들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가우며, 오전 미팅에서 대국 인도답게 포용하는 정책방향이 매우 인상적이었음
 - 한-인도는 1973년도 국교수립 이후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
 - 2018년 7월에는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 지난 3월에는 모디 인도 총리가 대한민국을 방문하였고, 지난달에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이 만났음
- 오늘 면담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되어 방송통신 분야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함

【 KBS 월드 관련 】

- (KCC) KBS월드 채널이 이제 인도 위성TV 채널를 통해 인도 시청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런칭비용을 감면해 주신 점 매우 감사드리며,
 - 저도 한국으로 돌아가서 KBS측에 후속조치가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음
 - 또한,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인도 문화가 익숙하지 않아서 인도TV를 통해 인도문화가 한국 시청자들에게 소개된다면 많은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함
 - 인도와 한국은 역사적, 문화적으로 공통점이 많음. 정서적으로도 대가족, 가족사랑 등 유사한 문화가 많이 있어 양국에서 많은 인기가 있을 것임

<주요 면담 사진>



- (MIB) KBS와 프라사르 바라티간의 협약으로 양국에서 TV채널 런칭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되어서 저희도 매우 고마움
 - 지난 6월 22일에 서명했으며 우리측 DD와 KBS 실무진이 출범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음

【 방송 규제체계 관련 】

- (KCC) 인도는 세계 3번째로 큰 스마트폰 시장이며, 그 성장률은 세계 1위라고 알고 있음.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성장의 특징은 실시간 중심의 지상파TV 시청패턴이 비실시간 중심의 모바일 시청패턴으로의 변화임. 이러한 미디어 환경 변화와 관련하여 인도 방송정책 방향의 큰 틀은 무엇인지 매우 궁금함
- (MIB) 우리부처는 정보, 방송, 영화 정책 등을 담당하고 있지만, 특히 방송시장 규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
 - 과거에는 국영으로 라디오 AIR와 TV DD 2개 채널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양한 언어로 위성을 통해 900개 넘는 채널이 인도 전역에 방송되고 있음

<주요 면담 사진>



- DD와 AIR 조직 산하에 각 주별로 라디오와 TV 방송국이 있으며 그 지역 언어로 방송되고 있는 구조임
- 방송 콘텐츠에 대한 규제는 없으며, 방송사 자체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며, 특히 민영방송의 콘텐츠는 규제하지 않고 있음
- 광고의 경우, 광고표준위원회에서 여성혐오 등 부적절한 내용에 대해 규제하여 TV에 방송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KCC) 400개가 넘는 라디오 채널이 있음에도 콘텐츠 내용에 대해 규제하지 않고 자율규제 하는 것이 매우 놀라움. 다민족 다언어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통합의 비결이 모든 포용, 자율규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됨
- (MIB) 우리는 과거에 DD와 AIR를 직접 우리부처 밑에 두었으나 프라사르 바라티법을 통해 프라사르 바라티를 독립된 기관으로 만들고 이사회를 통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있으며 예산만 지원하고 있는 시스템임
 - OTT 관련해서는 규제는 없으나, SNS 등과 같은 새로운 플랫폼과 기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하고 있음
- (KCC) 모바일 중심의 방송환경 속에서 지상파 방송을 보호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방송정책에 대해 설명해 주기 바람
- (MIB) 독립된 프라사르 바라티가 인도의 지상파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정부 예산을 지원받되, 독립적인 운영이 원칙임
 - 현재 미디어의 변화는 광고의 경우 TV에서 SNS로 이동하고 있고, 정보(방송)의 경우 인쇄매체에서 방송 그리고 SNS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임
 - 우리도 환경 변화에 맞게 DD와 AIR의 자체 OTT를 개발하고 유튜브를 활용하기도 하고 있음
 - 해외 동포 인구가 캐나다, 뉴질랜드 등에 많기 때문에 디지털 플랫폼이 매우 중요함
 - 또한, 우리는 의무전송규제가 있는데 민영케이블 방송이 중요한 인기스포츠를 할 경우 지상파 DD와 공유되어야 하는 룰이 있음. 이것이 지상파를 보호 전략이기도 함

【 방송 콘텐츠 관련 】

- (KCC) 인도는 영화를 사랑하고,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영화를 제작하는 나라이기도 함. 저 역시 청소년기에 신상(神象, Elephant is my companion)이라는 인도 영화를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남
 - 한국 영화 수준도 상당히 발전되어 올해의 경우 <기생충>이라는 영화는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바 있음. 한국과 인도간 영화 분야 교류도 활발했으면 좋겠음
- (MIB) 인도 영화에 대한 관심에 대해 매우 감사드리며, 더욱이 오래된 <신상> 영화를 기억하다니 대단함
 - 우리는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으며, Free Dish 플랫폼을 1,300만 시청자에게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그 재원은 민영채널의 이 플랫폼 진입시 지불해야하는 비용 등으로 수익을 올림
 - 인도의 경우 한해 약 2,000여편이 영화가 제작되고 있으며 힌디어 등 지역 언어로 다양하게 제작되고 있고 대단히 큰 산업이며 약 100만명의 종사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올 11월에 개최되는 <인도 고어 국제영화제>에 한국 측도 많은 참여가 있기를 바램
 - 영화를 통해 양국 국민들이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과 교류, 이해 등이 있기를 기대함
- (KCC) 한국도 인도와 같이 영화를 많이 사랑하며 영화를 많이 찾는 나라임. 인도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이유, 잘 만드는 기술의 있는지가 궁금함

- (MIB) 인도 영화에 대한 관심에 대해 매우 감사드리며, 더욱이 오래된 <신상> 영화를 기억하는 것은 대단하다고 생각함
 - 인도 영화 발전의 원동력은 자율규제시스템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한해 민간에서 약 2,000여편 제작되며 영화인증기구인 중앙인증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 요즘은 영화보다 게임회사 수익이 급증하고 있으며 젊은층도 애니메이션, 게임, VR 등에 관심이 많음
- (KCC) 인도와는 2015년 9월 CEPA 협정을 근거로 시청각공동제작 협정을 체결하였지만, 그 성과는 저조하다는 평가임. 양국간 콘텐츠 교류 활성화가 필요할 것이며, 인도 방송정보부에서 어떤 정책을 펼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람
- (MIB) 시청각공동제작협정과 관련하여 양국에서 제작한 영화가 주목 받을 수 있을 것임
 - 인도의 경우, 한국의 풍경과 한국의 배우들을 보고 싶어 할 것이며, 한국에서도 인도의 풍경과 배우에 대해 관심이 있을 것임
- (KCC) 방송분야 공동제작은 KBS와 EBS의 실적이 있으나 프로그램 교류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고, 차관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함
- (MIB) 공동제작 외에도 프로그램에 대한 교류도 중요하다고 생각함
 - 프라사르 바라티 소속 방송사의 프로그램 카탈로그를 한국 방송사와 공유할 의향이 있음

- 또한, 한국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해 인도에서 많은 관심이 있을 것이며, 그리고 인도의 가족 드라마들이 남미까지 인기를 얻고 있는데 그래서 인도 가족 드라마, 한국의 애니메이션 카툰 등이 교류할 수 있는 부문이라고 생각함
- 그리고, 프라사르 바라티에서는 과학, 농업 등의 교육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고 이 콘텐츠도 유용할 것임

【 마무리 】

- o (KCC) 인도의 가족 중심 소재 드라마, 교육 채널 콘텐츠, 한국의 애니메이션이 교류할 수 있다는 정보는 관심을 갖고 귀국해서 체크해 보겠음

5. 인도 통신규제위원회(TRAI) 면담

□ 개 요

- 일 시 : '19. 8. 2.(금) 11:00~12:30
- 장 소 : 통신규제위원회 회의실
- 면담자 : R.S.Sharma(알에스 샤르마) 위원장 등

< 통신규제위원회(TRAI) > 개요

- 명칭 : 통신규제위원회(Telecom Regulatory Authority of India)
- 설립 : 1997년 2월
- 주요 임무 : 통신 시장의 성장을 통한 글로벌 정보 사회 부상에 대응
 - 인도 통신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공평한 경쟁 여건 조성
 - 통신요금, 주파수, 라이선싱 상호접속료, 번호이동성 등의 이슈 관할
- 주요 관할 이슈
 - 통신 : 통신요금(Telecom Tariff), 상호접속, QoS, 주파수, 라이선싱, 인터넷 &브로드밴드, VAS, 모바일 번호 이동성, 소비자 보호(consumer initiative) 등
 - 방송 : 요금 규정(Tariff Order), 상호접속, QoS, TV방송사, 라디오방송사, 콘텐츠유통플랫폼 사업자, 시청률 측정 등
- 통신규제위원회(TRAI) 조직은 의사결정 기구인 위원회(Authority) - 사무국
 - 지방 사무소(Regional Office)의 구조로 구성

□ 주요 면담 내용

【 인사말씀 】

- (KCC) 인도 TRAI(통신규제위원회)를 방문하게 되어 매우 기쁘며, R.S.Sharma(알에스 샤르마) 위원장님을 만나게 되어 영광임
-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통신업무 전반과 양국 간 협력 방안 모색에 대해 폭넓은 의견교환이 있기를 기대함

<주요 면담 사진>



【 브로드밴드 】

- (KCC) 인도에서는 유선 브로드 밴드의 보급률이 낮은 것은 모바일 서비스가 넓은 지역에는 무선이 더 유리해서 인지?
- (TRAI) 매우 중요한 점임. 인도는 예전에 처음 시작했을 때는, 공공사업자가 하나였고, 유선 분야에서 실적이 좋지 않았음. 모바일이 출시되면서 유선은 포기하고 모바일이 성행하게 됨. 그러나 이후 유선 브로드밴드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확대하려고 노력 중임

- 한국의 고정 브로드밴드 성공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함. 인도에서는 광케이블 설치할 때 도로 관련 부분 등을 쉽게 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케이블 깔 수가 없고 이런 점이 인도에서 브로드밴드 실현을 하기 어려운 원인임.
- o (KCC) 2000년 초반 인터넷 보급 시 정보고속도로라는 정책이 있었음. 지하나 지상으로 케이블 구축할 때 정부가 많은 부분을 지원해주었고 지금까지 모바일 망도 연결하여 발전하는 기반이 되었음

【 5G 관련 】

- o (KCC) 한국은 5G를 세계 최초로 서비스 시작하였음. 아직은 5G에 대해서 획기적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고 아직도 개발중 임. 메이저 통신사마다 전송망을 구축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 5G 추진 계획이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람
- o (TRAI) 인도는 올해 회계연도 안에 5G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있음. 인도의 통신사들은 5G를 왜 도입해야 하는지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임. 5G를 먼저 도입한 한국의 경험을 듣고 싶음
- o (KCC) 5G는 현재 진행중임. IoT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첨단 통신 분야가 개발 되고 있으며, 많은 시험이 진행중임.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5G를 도입해야 하는 인식이 공유되어야 한다고 봄. 전송망에 대한 투자가 자금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통신사가 도입을 꺼리는 것으로 생각됨. 다른 나라의 진행 상황을 보면서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임

- (TRAI) KCC와 TRAI간 실무자간의 공식적인 대화 창구가 있었으면 좋겠음. 협정문을 보낼테니 검토해 주시기 바람.
그리고, 5G 단말기 가격이 높은데 한국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 (KCC) 공식적인 대화창구를 만드는 것은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함. 협정문을 보내주시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음.
그리고, 한국은 보조금을 통신사들이 활용하여 팔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4G 보다 많은 보조금이 나가고 있고, 시장 과열되지 않고 이용자 차별이 안되도록 모니터링 하고 있음. 인도는 보조금 지급을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는지?
- (TRAI) 보조금 체제는 아직 혼치 않은 상황이며, 보조금을 많이 주지 않음. 통신사들이 결합 상품을 출시(낮은 금액)하고 있음. 이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음.

【 디지털 인디아 정책 】

- (KCC) 인도가 추진하고 있는 통신 정책 중에 디지털 인디아에 대해 궁금함. 비용절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 전략으로 디지털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당초 목표에 비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함.
- (TRAI) 디지털 인디아는 포괄적인 프레임워크로 디지털 사회와 지식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수립된 정책임. 첫 번째 디지털 인프라, 두 번째 소프트웨어, 세 번째는 시민들의 권한 신장의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음. 디지털 인프라 측면은 브로드밴드 연결성에 집중하고 있고 신 디지털 아이덴티티 인프라를 구축중임. 인프라에 기반한 시민들의 권한 신장이

될 것으로 생각함. 포괄적 디지털 사회와 지식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로 진행하고 있음. 디지털 인프라 구축(통신 포함), 소프트웨어, 온 디멘드 서비스를 포함하는 개념임.

【 통신 이용자 보호 】

- o (KCC) 통신 이용자 보호가 방통위에 주요 업무임. TRAI에서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들었는데 소비자 보호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글로벌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지?
- 한국은 페이스북에 이용자보호 업무 소홀히 한 혐의로 수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페이스북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음. 인도에서도 글로벌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가 있는지?
- o (TRAI) 인도는 허가 프레임이 국내외 사업자간 동일하며, 위반의 강도에 따라 규제가 달라짐. 과징금과 비슷한 위반할 경우 일정 금액을 내야 하는 체제가 있고, 법원에서 벌칙을 결정하고, 사업자 허가 회수하는 등 규제를 할 수 있음

【 OTT 】

- o (KCC) 인도는 OTT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향후 대책은? 글로벌 사업자는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 협력이 되어야 하는데 어떤 의견이 있는지?

- (TRAI)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임. 불공정한 시장, 사업자의 정보 미제출, 이용자 보호 등이 문제임. 글로벌 사업자의 대응에 대해 다른 나라와 협력,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겠음.

【 해외 사업자 규제 】

- (KCC) 인도는 국내외 사업자간 공정 경쟁이 가능한지? 차별은 없는지? 해외 글로벌 사업자의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한 지분 참여로 공정 경쟁이 가능할지? 규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 (TRAI) 인도는 개방 시장이며, 글로벌 사업자 참여에 제한 없음. 직접 투자 받고 있고, 허가도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음.

【 마무리 】

- (KCC) 귀중한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함. 오늘 면담을 통해 인도의 통신 규제 정책 등에 대해 많은 이해가 되었으며, 제의하신 양국 간 공식적인 협의 창구가 만들어 지기를 희망함. 돌아가서 협의하도록 하겠음.

<주요 면담 사진>



 방송통신위원회	보 도 자 료 2019년 7월 30일(화)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제공일 : 2019.7.30.(화)
문의 :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 강필구 과 장(☎2110-1331) 권혜진 사무관(☎2110-1358, khj8216@korea.kr)		

김석진 방통위 부위원장,

인도와 방송통신 협력 강화 추진

- 한류 방송콘텐츠 인도 진출 및 양국 방송통신정책 협력 등 논의 -

방송통신위원회 김석진 부위원장은 인도를 방문하여, 방송통신 분야의 정책 현안을 파악하고, 양국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7월 30일(화) 출국한다.

이번 방문기간 동안 김 부위원장은 인도의 통신규제기관인 통신 규제위원회(TRAI, Telecom Regulatory Authority of India)와 인도의 이동통신사 바라티 에어텔(Bharti Airtel)을 방문하여 양국 간 통신서비스, 공정경쟁 정책, 이용자 보호 정책 등 정책 현안과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인도 공영방송사인 프라사르 바라티(Prasar Bharati) 회장과 면담을 갖고 공영방송의 운영 현황 및 방향, 방송 콘텐츠 교류 협력 방안 등에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한국문화원을 방문하여 인도내 한류 콘텐츠 진출 현황과 인도 국민 현지 반응 및 방송 콘텐츠를 통한 신남방정책 전략 등을 들어볼 예정이다. 끝.